

# NET WORK



110100101101001011010010101101001011010010110100101101001011010010  
 10111010010111010010111010010111010010111010010111010010111010010  
 01001011101001011101001011101001011101001011101001011101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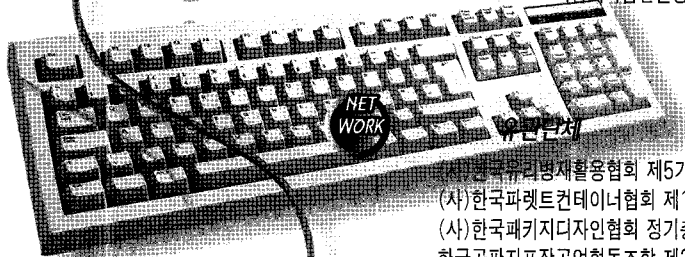


### 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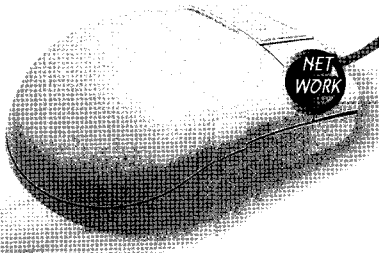
(사)한국공장협회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사)태양전자 불소필름·EVA 시트 양산

### 정책기관

충남도 중소·벤처 디자인 개발 지원 착수  
 지식경제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발표  
 보건복지가족부 토종 명품 화장품 키워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 기호 식품 유통 실태 조사



(사)한국유통리빙생활협회 제5기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패킷컨텐츠협회 제13기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날 개최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제25기 정기총회 개최



### 업계동정

(주)도미노피자코리아 국제규격 ISO22000 인증 획득  
 (주)오토닉스 산업 자동화 전시회 aimex 2009 출품  
 (주)한진피앤씨 지난해 매출 8백30억원, 사상 최대  
 홈플러스 자체브랜드 상품에 탄소라벨 부착

(사)한국포장협회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제12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 열어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윤영욱)은 지난 달 25일 '포장인의 날'을 맞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윤영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 경기의 난재 속에서도 지난 해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온 회원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밝히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는 등 포장업체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고, 올해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상호간 협력을 통해 업계 발

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올해 협회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및 정부 및 유관단체 포장관련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 온 조사 및 전시사업, 출판사업 등에 주력해 협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제12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이 개최 ▲ 수출진흥부문 이경희(삼영화학공업(주) 상무이사) ▲ 연구개발부문 이덕재((주)유상 연구개발부 부장) ▲ 장학부문 최홍열(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3년), 황준우(경북과학대학 포장과 1년), 이진아(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1년) 등에게 상금과 상장 및 부상을 전달했다.

수출진흥부문을 수상한 삼영화학공업(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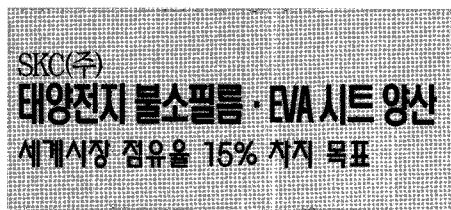
▲ (사)한국포장협회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이경희 상무이사는 지난해 4천17만5천달러를 수출, 올해 5천만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BOPP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해외시장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출차별화로 안정된 판매망 확보한 공을 인정받았다.

연구개발부문을 수상한 (주)유상의 이덕재 부장은 VM-ULF(저온 CPP필름)를 개발, 원가절감 및 생산수율을 향상시켰으며 VM-UEB(하이 베리어 및 이지컷 CPP 증착필름)를 개발해 수입대체를 실현, 포장재 원가를 절감했다.

한용교포장인상은 한국포장협회 한용교 명예회장이 회사한 재원으로 포장인들에게 연구의욕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 포장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지난 1996년 제정됐다.



SKC(주)(대표이사 박장석)가 태양전지용 필름소재분야에서 가속도를 내고 있다.

SKC는 태양전지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불소필름과 EVA 시트를 개발완료하고 수원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SKC는 이미 대량 생산하는 기존의 태양전지용 폴리에스터필름(Back Sheet 용)에 이어, 불소필름과 EVA 시트까지, 이른바 태양전지용 3종 필름을 공급하게 됐다.

SKC는 이를 계기로 태양전지용 필름소재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12년 태양전지용

필름 매출 1천9백억원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박장석 사장은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3가지 종류의 모든 필름소재를 공급하는 세계 첫 메이커가 됨으로써 세계 일류 필름제조업체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기 침체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태양전지용 필름소재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KC는 태양전지 필름소재를 모두 국산화하면서 관련업계의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일본에 의존하던 핵심소재를 대체해 국내 태양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태양전지에는 일반적으로 불소필름, EVA 시트, 폴리에스터필름이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SKC는 태양전지용 필름 시장규모가 2008년 4천2백억원에서 2012년 1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SKC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불소필름은 미국 듀폰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한 태양전지용 핵심소재로 세계 시장규모가 약 1천억원에 이르며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EVA시트는 태양전지용 봉지재(封止材, Sealing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쓰이화학, 브릿지스톤 등 일본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 세계 시장규모는 약 2천7백억원으로 그 수요가 30% 이상 성장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